

卷頭言



會長

吳石煥

協會의 얼굴인 「水道誌」의 第7號를 發刊하게 되었다.
도리켜 보면 74年 2月 1日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社團法人의
設立許可를 받은 후 그해 7월 創刊號를 낸 이후 계속 꾸준히
季刊으로 發刊되어 왔다.

그間 本誌는 主로 國內外的 새로운 技術·情報과 資料를 위시
하여 實際 經驗을 통한 좋은 글들을 發表하여 여러모로 有益하
고 水道界에 미치는 影響이 컸다고 自負하는 바이다.

앞으로도 本誌는 계속 國內外的 最新 技術·情報를 위시하여
우리나라 水道가 當面하고 있는 諸般 어려운 문제解決에 앞장서
기 위하여 水道人 여러분의 衆智를 모아 反映시켜 나갈것을 다
짐하는 바입니다.

이제까지 會誌發刊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될수 있었던 것도
原稿 廣告를 寄託해주신 여러분과 會員諸位의 後援의 結果라고
믿어지는 바이다.

우리나라의 水道도 80年代를 向한 前進을하고 있는 이때 本誌
가 水道人 共同的 廣場으로서, 우리나라 水道界 發展에 一翼을
맡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聲援을 다시 한번 付託하는 바
입니다.

1976年 4月

